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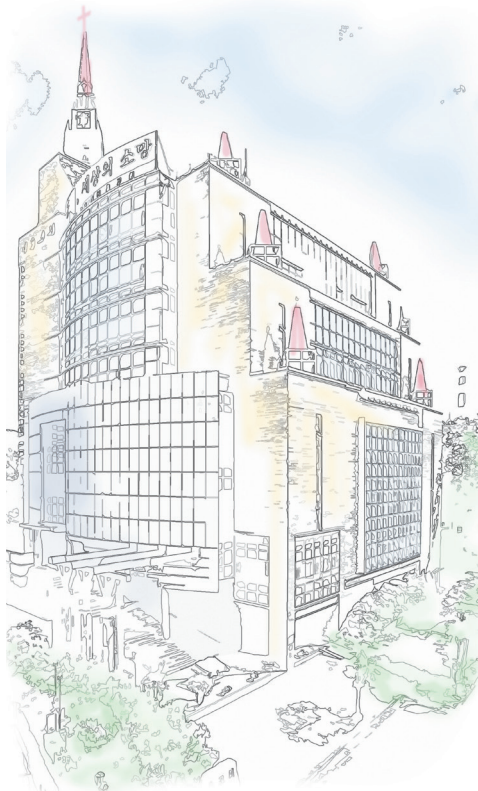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II

(요 1:4)

이종윤 원로목사



5. 영생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 3:36)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생명(Life)과 영생(Eternal life)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생명과 영생을 서로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여기서 나오는 목숨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버리셨다는 말일까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이단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말씀 까닭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신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생명은 '조에'인데 요한복음 10:11의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영(Soul)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육신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은 잠정적으로 입으신 육신이 죽으셨다는 말이지 그 영이 죽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지상의 생명 또는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현재 소유된 생명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은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 순간 순간이 영생이며 천국입니다.

(3) 미래적 유산으로서의 생명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천국의 미래적인 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적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천국이 나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덤이 깨지면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미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생명과 하나님의 관계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의미와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말은 통치,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 14:2) 라는 말씀과 같이 천국은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고도 표현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3). 여기에서 영생은 천국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 천국, 예수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5) 생명과 아들 그리스도와의 관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일 5:12).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 만들어 낸 단어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풍성한 천국이 있고 찜찜한 천국이 있느냐, 아파트 65평짜리와 13평 차이가 있듯이 천국의 방도 평수가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은 전부 상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자꾸 면류관이 붙습니다. 그래서 금 면류관이 붙고 별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상 제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경주하는 자와 같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그만 이요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천국에 가는데 풍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불의하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생명의 기본적 원천은 자신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요 5:26).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 흥해작전 영원한 위로(慰勞)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고전 6:19~20)

6월 6일(목)~6월 25일(화) 오전 5시 30분~6시

특별새벽기도회 : 6월 17일(월)~6월 22일(토) 오전 5시 ~6시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 서창원 목사

서울교회 흥해작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을 가로 막고 있는 흥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작전으로써,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28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작년 흥해작전 기간 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고 찬양을 돌려드렸었다.

이제 2019 흥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우리 서울교회와 우리나라와 교우, 개인의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한다.

다음 주 6월 2일(주)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는다.

I. 주 제 : "영원한 위로(慰勞)"

II. 주제 성구 :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고전 6:19~20)

III. 주제 찬송 :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IV. 행동강령 : (1) 새벽마다 기도한다.
(2) 함께 모여 기도한다.
(3) 위로받고 기도한다.

V. 기간 및 일정 : 6월 6일(목)부터 6월 25일(화) 오전 5시30분~6시

VI. 특별새벽기도회 : 6월 17일(월)~6월 22일(토) 오전 5시~6시

VII. 강 사

- 6월 6일(목)~6월 8일(토) / 서명철 목사
- 6월 10일(월)~6월 15일(토) / 장석남 목사
- 6월 17일(월)~6월 22일(토)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 6시 / 서창원 목사
- 6월 24일(월)~6월 25일(화) / 조원영 목사

VIII. 찬양대 순서

- 17일(월) : 1부 가브리엘찬양대
- 18일(화) : 2부 할렐루야찬양대
- 19일(수) : 3부 임마누엘찬양대
- 20일(목) : 은빛찬양대
- 21일(금) : 호산나·시온찬양대
- 22일(토) : 베들레헴찬양대

IX. 교회학교 행사

- 글짓기, 4행시(흥해작전) 6행시(일구흥해작전),
- 그림그리기, 포토상
- 교회학교 출석상

2019 흥해작전 공 동 기 도 문

1. 하나님 아버지! 폭풍처럼 밀려오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소서
2.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의의 병기로 불의와 대적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3.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음을 믿게 하심으로 생사 간에 가장 큰 위로를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4.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피난처가 되시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울타리 밑에서 울부짖는 우리 교회, 국가, 가정을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5.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 몸 되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성경적 교회로 갱신되게 하옵소서
6. 위로의 성령님, 복음화 된 통일조국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거듭난 서울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날을 지체하지 마옵시고 이루시되 이 사명 앞장서서 감당할 하나님의 목회를 할 목회자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주소서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X. 2019 흥해작전 조직

- 부장 : 최형열 장로 지도 : 장석남 목사
- 기획 : 김혜연 / 장윤기
- 예배 : 황병석 / 백승갑
- 찬양 : 오승민 / 김영희
- 동원 : 이민호 / 장상국
- 홍보 : 김규태 / 유은경
- 봉사 : 허 숙 / 김선영
- 차량 : 김광태 / 최원석
- 재정 : 김광민 / 이용호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미현2 정복순 문동진·김은정 전용순 장창수·박혜정 안선광·고영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우리 교회는 모든 교역자들이 반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심방예배, 스테반회, 권사회 월례회 등을 인도할 수 있다.

강남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공사

5월 16일(목)~6월 10일(월)

강남구민회관이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로 5월 16일(목)~6월 10일(월) 동안 주차를 금지한다.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9(주)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12(토) 오후 1시



총회재판 재재심 판결문

지난 5월 14일 선고한 서울교회 관련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두건의 판결문이 나왔다.

우선 박노철 목사가 청빙 당시 타 교단 목사로서 우리 통합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 2년이 초과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본안판단까지도 나가지 않은 채 재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우리 측은 서울강남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허락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제기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소기간 2년 규정은 제소자 모두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만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판단만으로 아예 제소자체를 막은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마치 청빙 무렵부터 그런 무효사유 모두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였지만 당시 서울교회가 제출한 청원은 **박노철 목사의 청빙과정 1년 이**

수관련 내용 뿐 또 다른 무효사유로 거론된 박노철 목사의 합동 측 교단소속 목사 여부, 총신대학원 정식 졸업여부 등은 이 소송제기 직전에야 밝혀진 내용으로서 위 판결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우리 측에서 알고 있었다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주장까지 애써 외면하며 치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많다.

다만 이 재재심 청구 기각판결은 작년 2월 박노철 목사가 승소하였던 제102회기 재심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돌아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청빙효력이 유효하더라도 안식년제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아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며 대법원판결 때까지 박노철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담임목사직 직무행정지가처분을 내린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박노철 목사는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음, 박노철 목사 측에서 세운 15인 장로들에 대한 자격유무를 다투었던 사건은 우리 측에서 제기한 재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에서

승소하였던 제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박노철 목사 측의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장로교에서 장로선출은 대의제 정치원리에 따라 당회에서 그 필요성 여부와 필요인원,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상회인 노회가 지교회에 지시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장로선출과 같은 직원선거는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별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장로선출은 지교회 당회의 전속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가법원의 장로임직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02회기 재심판결을 근거로 총회에서는 장로자격을 인정하였다며 교회 내에서 여전히 장로로 활동하고 호칭하던 15인은 더 이상 장로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 달로 연기된 안식년제 규정 관련건도 일부 정치호도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대로 잘 판결되기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 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재재심 제102-19호

사 건 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재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재심 제102-9호<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 제101-07호) 재심사건] 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서]

주 문

1.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09호)을 일부 인용한다.
2. 원고들(재재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상 행정행위가 있는 날은 2011.11.8. 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2016.11.4. 인 바,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147조 제3항 소정의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소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재심 제102-09호) 사유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인용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128조 제2항에 의거 원고들(재재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9. 5.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 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재재심 제102-20호

사 건 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9인이 제출한 "재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재심 제102-10호<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사건번호 : 제101-53호) 재심사건] 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서]

주 문

1. 예총재판국 2018. 2. 13. 선고 제102-10호 판결(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 건에 관한 예총재판국 제101-53호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자판한다.
3. 서울강남노회의 서울교회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7.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 4. 4. 제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2017. 4. 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을 지시한 행정행위는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본 판결의 취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에 다시 그 무효 확인 내용을 기재한다). 예총재판국 2018. 2. 13. 선고 제102-10호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피재심청구인들의 위 예총재판국 2017. 9. 11. 선고 제101-53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9. 5.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 000교회음악대학원

000교회음악대학원 학생 '00'는 졸업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본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유학 온 '**'도 5월 초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동시에 음악목사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아직 열악한 환경의 000교회음악대학원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2. ***선교센터

마을의 기독교인들의 운영위원회들과 협력하여 구제용품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을 000지역의 80명의 과부들과 고아들과 저소득자들을 돕기로 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일이 한 가정씩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들이 한 번도 자신들이 선교사님께 식사를 대접한 일이 없다고 볍음밥을 집에서 직접 해와 000선교사에게 주고 자신의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할 줄 알았던 어린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00'가 이슬람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선교센터를 찾아왔습니

다. '00'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지 한 달만에 '00'가 선교센터에 찾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선교센터가 세를 얻은 기한이 끝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주신 은혜로 싼 가격에 좋은 선교센터를 구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새 장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전에 있던 선교센터에서 거리가 있어서 000선교사가 어린이들을 태워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린이들이 안정될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2. 인도네시아의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3.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 부부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에 충성과 복종이 있기를 위하여
4. 000교회음악대학원의 시설들 건축을 위하여
5. **** 선교센터의 영구적인 장소를 위하여
6. 저희 가족이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7.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8. 저희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도록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27일	월	느 8-10		눅 1-2	
5월28일	화	느 11-13		눅 3-6	
5월29일	수	에 1-3		눅 7-9	
5월30일	목	에 4-10		눅 10-12	
5월31일	금	욘 1-3		눅 13-17	
6월1일	토	욘 4-7		눅 18-21	
6월2일	주일	욘 8-10		눅 22-24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1(토) 사랑의쌀운동과 몽골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전시회 : 15교구 전광역 집사 5월 23일~6월 12일 Beck & Eggeling 갤러리, Dusseldorf



- 박사학위 취득 : 11교구 박선영 성도 (박정선 은퇴장로·김남순 권사의 딸) 미국 존스홉킨스, 피바디음대 음악박사학위

- 금주의 식사 : 조정식 장로·김영식 권사 (범사에 감사하며) 교회제공 명란젓국산골순두부찌개, 오이무침

- 오이 제공 : 오치열 장로·하숙 권사
- 떡 제공 : 이우태 집사·박정희 집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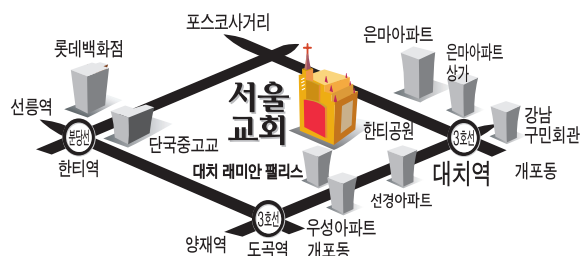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을 잘 준비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19 흥해작전이 되도록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